

예비보육교사의 핵심역량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오 대 연*, 이 병 임**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의 보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과 진로스트레스 그리고 진로포부 간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역량과 진로포부 그리고 진로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핵심역량이 높을수록 진로포부는 높아지고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졌다. 둘째, 핵심역량과 진로포부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인 자질과 태도 및 능력역할과 진로포부는 진로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핵심역량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핵심역량이 진로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로포부를 매개로한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핵심역량은 진로포부를 매개로 하여 진로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부분에서는 연구에 대한 논의 및 제한 그리고 추후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Key Words): 핵심역량(Core Competency)

진로스트레스(Career Stress)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

I. 서론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은 교육의 질과 관련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 교육은 미래사회 대비는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의 요구로 질적, 양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관심의 확대는 유아교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제1저자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조교수, 교신저자(kyclee@konyang.ac.kr)

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유영의, 2011). 이에 각국은 유아교육의 체제를 개편하고 영유아기 교육에 투자비율을 늘이고 있다(임옥경, 2014).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교육의 효율적인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양성, 교사평가, 현직교육 등 교사의 질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처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낮추거나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학습자인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원 교사에게는 초등이나 중등교사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내용이나 선정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유아는 신체나 언어적으로 미성숙한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유치원 교사가 발휘해야 할 역량은 다른 학교 급의 교사 역량과는 달리 보호기능인 돌봄 활동이 교육활동과 함께 요구된다(박은혜, 2002). 이처럼 영유아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동시에 가장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임승렬, 2009) 미래의 인적 자원을 위해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박승태, 2011). 따라서 유아의 바른 성장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유치원 교사의 특성이 반영된 역량을 규명하고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유치원 교사 역량은 유아교육의 프로그램과 유아의 성취능력은 물론 학급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교사의 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핵심역량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역량’이란 용어는 본래 직업훈련이나 기업조직에서 논의되다가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교육 분야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경쟁 속에서 자신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성적에 맞추어서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진로나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 취업률이 낮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물론 사회적 요인 이외에도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이 진로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인들은 학교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다.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할 때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진로스트레스가 감소되므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주희(2013)는 진로스트레스와 학업 그리고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다루었고 이숙정(2013)은 핵심역량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준비행동의 연구에서 핵심역량이 미래 직업능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유순규와 김은주(2016)의 연구에서는 핵심역량과 진로정체감이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핵심역량과 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면 진로스트레스는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진입하고자 하는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

량이 높으면 진로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핵심역량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진로포부 역시 대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진로포부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 내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희망의 목표 혹은 성취하고자 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대학생들과 관련된 진로포부 연구는 진로장벽(윤현희, 2008), 개인적 특성(이경미, 2010), 진로준비행동(윤지혜, 2011)과 같은 변인들을 다루었다. 진로포부가 희망이나 성취와 관련이 있다면 역량과도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핵심역량과 진로포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핵심역량과 진로포부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핵심역량과 진로스트레스의 영향에서 진로포부 수준이 어느 정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예비교사들의 핵심역량, 진로포부, 진로스트레스는 학년제 학년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핵심역량, 진로포부, 진로스트레스의 상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핵심역량과 진로포부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핵심역량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핵심역량의 개념

‘역량’이라는 개념은 1973년 사회심리학자인 McClelland는 지능보다는 「역량을 위한 검사」(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intelligence)라는 글을 통해 인적 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학문적 적성과 지식내용을 평가한 시험이 직업수행이나 성공적인 삶을 예언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성적 대신 역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주장 이후 전통적인 시험점수가 실제 직업에서의 성공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직업수행능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역량모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량모델은 주로 기업체에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거나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하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McClelland 이후 Boyatzis(1982)는 「역량 있는 관리자」라는 글을 통해 직무 수행과 연관된 역량의 특성과 종류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관리자의 효과적인 역량개념’을 발표하면서부터 역량의 의미가 경영학 분야 및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역량을 지식과 기능으로 간주하

였으나 점차 지식 이외의 비인지적 특성인 기술, 태도 영역으로 구체화 되었고 조직의 기준에 따라 측정이 가능하고 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정순, 2012)

역량의 개념은 그것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서 정의되어 왔다. 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며 문용린, 유영재, 전종희, 엄채운(2007)은 역량을 개인의 능력, 행동들, 직무에서의 표준이 되는 목표,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 우수한 수행을 야기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 맥락 의존적인 내적 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병창, 부재울, 한정임, 이경희(2007)는 역량이란 일종의 핵심적인 직무수행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소경희(2007)는 ‘속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하였다. 윤여복과 이기성(2010)은 역량이란 21세기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량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능력을 ‘핵심역량’이라고 한다. 이는 ‘역량’ 개념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와 감정, 기치, 동기 등과 같은 요소도 의미 있게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처럼 역량과 핵심역량은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명확히 구별하기 보다는 핵심역량이 역량의 부분집합 혹은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상호중복 혹은 통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며 핵심역량은 특정한 직무나 역할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알아야 할 것, ‘지식’ 과 할 수 있는 것, 즉 ‘수행’ 그리고 ‘태도’ 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교육 분야에서 역량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분야에서도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영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은 교사의 역할과 직무, 자질 및 능력에 관련된 것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보여주는 교사 전문성 기준과 관련된다.(박승태, 2011). 국내 학자들의 유아교사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병창 외(2009)는 문헌고찰과 현장 종사자 및 관련학과 대학 전공교수를 대상으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핵심역량의 영역과 요소를 설정하였으며 신은수 외(2011)의 연구는 핵심역량의 개념과 가치를 제시하고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 내용과 수준을 도출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핵심역량의 정의와 요소를 다룬 연구들이었다. 또한 박승태(2011)는 3년제 유치원 교사가 핵심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연구하면서 적절한 수업연한을 제시하였으며 김언진(2012)은 영유아와의 의사소통,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에 대한 연구자의 역할, 정보제공자, 인도하고 조력하는 역할과 같은 보호적인 역량이 보육교사의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육교사의 핵심역량을 영유아교사의 자질, 역할, 특성을 포함하면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핵심역량은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 기술, 태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므로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조직할 때 근거를 제공하며 교과목의 개설을 결정하고 교과목을 평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영유아교사의 핵심역량은 원장과 기관 운영자들이 교사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과 전략을 구성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역량을 주요연구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교육교사의 전문성 때문이다. 손홍숙(2015)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력과 교육과정 이수학점을 높이고 실습과 연수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과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지식, 기능, 이해, 성향 등이 각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박은혜, 2003). 학과의 교육과정이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문성과 역량이 증대되어한다. 교사는 교육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육계획, 교육활동의 전문성은 교사 역량 중 어느 정도 규정화 되어 있는 사회적 차원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역량 중 개인적 역량은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는 개인적 차원의 전문성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 오랫동안 종사했던 자신의 직업에 헌신하는 태도, 전문가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결정할 자율성이 있다고 믿는 태도(백혜리, 2008) 등을 말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역량은 ‘성공적인 실제 수행’ 즉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효과적이고 우수한 직무성과를 이끄는 개인의 잠재적 또는 내적 특성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Spencer & Spencer, 1993). 교사의 역량은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혹은 교사의 역할이 행동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역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이정순, 2012), 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성병창 외, 2009),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박혜경, 2012) 등이 있고 유치원 교원의 역량척도(임은정, 2012)를 다룬 연구가 있다.

2. 진로스트레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대학생들은 진로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 진로스트레스는 졸업 후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신체적, 심리적 긴장 혹은 불안상황을 의미한다(박선희, 2008). 전경구(1998)에 따르면 진로스트레스는 ‘취업을 위한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취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적성을 알 수 없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내던져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로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외부 상황은 거의 비슷하므로 진로스트레스는 당사자가 환경적 스트레스 사건 및 요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많은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진로스트레스를 겪게 되지만 모두가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들은 전공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입학했는지와 관련된 설문에서 54%가 학교성적(수능성적)이라고 대답했고 36%가 적성이라고 응답했다(<http://hikostat.kr/2114>). 자신의 적성 보다는 학교성적에 따

라 전공을 선택한 경우 대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더욱 커질 수 있지만 학교에서 복수전공과 연계전공 및 부전공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및 내용을 제공한다면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 효능감(주영주, 김동심, 2014), 진로준비행동(박선영, 2015) 그리고 우울(이지혜, 2014)과 정신건강(이봉재, 2014)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핵심 역량과 진로포부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가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진로포부

진로포부는 개인이 선택한 진로 영역 안에서 성취, 리더십,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정의된다(Kim, 2014, O' Brien, 1996). 따라서 진로포부는 기존 장래희망으로 대변되는 직업선택에서 나아가 개인이 미래를 바라보는 진로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최화영, 2015) 진로포부는 시대에 따라 다소 상이한 시각이 형성되었다. 초기에는 특정직업의 선택을 희망하는 개인의 열망으로 진로포부와 직업포부가 혼돈해서 사용되어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수록 포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후 직업포부는 일정한 시점에서 개인이 택한 구체적인 하나의 직업을 의미하고 직업선택에 따라 그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진로포부는 개인이 평소 이상적이라고 인식하는 직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나 명성의 정도를 의미하게 되었다(김국현, 2016 재인용, Farmer & Chung, 1995). 즉 진로포부가 직업포부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Gottfredson(1996)은 진로포부가 가능성을 의미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선택과 적합성을 의미하는 개인 및 환경적 열망과 직업선택과의 일치 산물로 의미를 정리하고 진로포부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는 진로포부의 발달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서열획득의 단계이다. 3-5세 시기의 아동들은 대상항상성 개념의 습득으로 어른들의 세상이 존재하고 그 세계에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2단계는 성역할 획득의 단계이다. 6-8세의 아동은 자신의 성역할에 적합한 직업인지가 중요하므로 자신의 성역할에 적합하지 않으면 원하는 직업목록에서 제외한다. 3단계는 사회적 가치 획득단계이다. 9-13세 아동들은 또래집단 및 타인의 사회적 평가에 예민하고 사회적 계층과 능력과 관련 있는 자아개념이 사회적 행동과 기대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4단계는 내적 자아확립 단계이다.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는 14세 이후의 청소년이 해당되며 앞 단계에서 확립한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 영역 안에서 진로탐색을 시작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타협의 과정이 시작되고 어떤 선택이 가장 선호되고 수용되는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Gottfredson 이후 O' Brien(1996)은 진로포부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녀는 진로포부가 자신의 진로영

역에서 성공을 위해 중요한 자리나 최고 권위자에 오르기를 바라거나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진로포부는 진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 자기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기대되는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포부가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실패보다는 성공과 목표달성에 초점을 두며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본 연구에서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아직 진로포부와 역량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역량과 진로포부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 분야에서 보육교사가 되길 원하는 사람과 유명한 대형 병원의 수간호사가 될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각각 자신의 진로포부와 자신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에 따라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거나 현실적인 직업선택을 결정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3년제 보육학과와 2년제 보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년제에서는 1학년 학생 61명, 2학년 학생 51명, 3학년 학생은 49명으로 구성되어 총 161명이었고, 2학년제에서는 1학년 학생 79명, 2학년 학생 60명으로 총 139명으로 구성되었다. 두 학교의 합은 200명이었다. 성별 연구는 남학생의 수가 적어서 실시하지 못하였다.

2. 측정도구

1) 보육교사 핵심역량

핵심역량 설문지는 김인진(2012)이 만들어서 사용한 자가 체크리스트로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태도 및 능력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구성문항 및 신뢰도와 문항의 예시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61로 나타났다.

표 1.

보육교사 핵심역량의 문항예시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예시	신뢰도
자질과 태도	1 - 19번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	.939
능력	20-35번	보육교사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어야한다.	.938
전체		35문항	.961

2) 진로스트레스

진로스트레스는 박희락(2009)이 사용한 것으로 진로불확실성, 고용압력, 정보부족, 외적갈등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로 4개요인의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구성문항 및 신뢰도와 문항의 예시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48로 나타났다.

표 2.

진로스트레스의 문항예시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예시	신뢰도
진로불확실성	1,2,4,7,11	1.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않아 불안하다.	.940
고용압력	3,5,6,8,12	3. 학과 공부와 취업준비를 같이 하는 것이 힘들어 스트레스이다.	.873
정보부족	9,13,16,17,19	9. 진로와 관련하여 주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막막하다.	.880
외적갈등	10,14,15,18,20	15. 부모님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는다.	.850
전체		20문항	.948

3) 진로포부수준

진로포부수준은 최숙현(2007)이 사용한 것으로 8문항 중 6문항은 리더 자신감 포부이고 2문항은 노력포부이다. 각 하위요인의 구성문항 및 신뢰도와 문항의 예시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진로포부의 Cronbach's α 값은 .816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하위요인인 노력포부의 Cronbach's α 값은 .389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 변인의 전체 점수만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6으로 나타났다.

표 3.

진로포부의 문항예시와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예시	신뢰도
리더자신감포부	1-6번	4. 보육관련 직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811
노력포부	7-8번	7. 내가 추구하는 직업에서 장벽이 있다면 극복할 것이다.	.389
전체		8개 문항	.816

3. 자료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 분석과 학년제에 따라 심리적 변인의 차이 분석, 관계분석, 영향 분석을 위하여 SPSS 21.0을 사용하였다. 핵심역량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포화모형이므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피는 것이 무의미하여 적합도 지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IV. 연구결과

1. 핵심역량, 진로포부, 진로스트레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예비보육교사의 핵심역량, 진로포부, 진로스트레스의 학년 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인 자질과 태도와 능력역할은 3학년이 M=4.64와 M=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로포부의 평균 점수는 3학년(M=3.45), 1학년(M=3.42), 1학년(M=3.33)의 순서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는 3학년(M=3.08), 2학년(M=2.98) 1학년(M=2.69) 순서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표 4.

핵심역량, 진로포부, 진로스트레스의 학년 간 차이에 대한 기술통계

하위요인	학년	평균	표준편차	하위요인	학년	평균	표준편차
자질과태도	1학년	4.44	.448	고용압력	1학년	3.13	.783
	2학년	4.27	.523		2학년	3.43	.705
	3학년	4.64	.347		3학년	3.62	.854
	Total	4.41	.479		Total	3.32	.789
능력역할	1학년	4.23	.510	정보부족	1학년	2.70	.762
	2학년	4.10	.503		2학년	2.97	.757
	3학년	4.40	.455		3학년	3.24	.907
	Total	4.21	.508		Total	2.89	.808
핵심역량	1학년	4.33	.460	외적갈등	1학년	2.37	.808
	2학년	4.19	.494		2학년	2.70	.859
	3학년	4.52	.373		3학년	2.51	.850
	Total	4.31	.473		Total	2.51	.845
진로포부	1학년	3.42	.535	진로 스트레스	1학년	2.69	.718
	2학년	3.33	.455		2학년	2.98	.673
	3학년	3.45	.558		3학년	3.08	.779
	Total	3.39	.512		Total	2.86	.729
진로불확실	1학년	2.57	1.005				
	2학년	2.84	.946				
	3학년	2.95	1.113				
	Total	2.73	1.011				

핵심역량, 진로포부, 진로스트레스의 학년 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핵심역량의 하위요인 중 자질과 태도($F=11.263$, $p<.001$), 능력역할($F=6.377$, $p<.01$) 그리고 전체 핵심역량 ($F=9.3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인 Scheffe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질과 태도는 3학년과 1학년과 2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는 하위요인 중 진로불확실성 ($F=3.724$, $p<.05$), 고용압력($F=9.499$, $p<.001$), 정보부족($F=9.45$, $p<.001$), 외적갈등($F=4.987$, $p<.01$) 그리고 전체 진로스트레스($F=8.07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인 Scheffe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압력은 3학년과 2학년, 2학년과 1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정보부족은 2학

년과 1학년, 3학년과 1학년에서, 외적갈등은 2학년과 1학년에서 그리고 진로스트레스는 3학년과 1학년, 2학년과 1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핵심역량, 진로포부, 진로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하위요인		제공합	df	평균제공	F	사후검증
자질과태도	집단 간	4.838	2	2.419	11.263***	c>a, a>b
	집단 내	63.789	297	0.215		
	전체	68.627	299			
능력역할	집단 간	3.182	2	1.591	6.377**	c>b
	집단 내	73.843	296	0.249		
	전체	77.025	298			
핵심역량	집단 간	3.950	2	1.975	9.301***	c>a, a>b
	집단 내	62.846	296	.212		
	전체	66.796	298			
진로포부	집단 간	.717	2	.358	1.370	
	집단 내	77.714	297	.262		
	전체	78.431	299			
진로불확실	집단 간	7.486	2	3.743	3.724*	
	집단 내	298.528	297	1.005		
	전체	306.013	299			
고용압력	집단 간	11.208	2	5.604	9.499***	c>b, b>a
	집단 내	175.21	297	0.59		
	전체	186.417	299			
정보부족	집단 간	11.68	2	5.84	9.450***	b>a, c>a
	집단 내	183.551	297	0.618		
	전체	195.231	299			
외적갈등	집단 간	6.943	2	3.472	4.987**	b>a
	집단 내	206.745	297	0.696		
	전체	213.688	299			
진로스트레스	집단 간	8.199	2	4.099	8.075***	c>a, b>a
	집단 내	150.770	297	.508		
	전체	158.968	299			

*p<.05 **p<.01 ***p<.001

a=1학년 b= 2학년 c=3학년

2. 핵심역량, 진로포부, 진로스트레스의 상관

핵심역량, 진로스트레스, 진로포부의 상관을 구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핵심역량과 진로포부 간에는 $r=.208$ 의 낮은 정적 상관관계($p<.01$)가 나타났으며, 핵심역량과 진로스트레스의 간에는 $r=-.114$ ($p<.05$)의 낮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핵심역량이 높아질수록 진로포부는 높아지는 반면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진다. 진로포부와 진로스트레스 간에는 $r=-.41$ 의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p<.01$)가 나타나 진로포부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진로포부가 낮아질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

핵심역량, 진로포부, 진로스트레스의 상관 분석 결과

하위요인	1	2	3	4	5	6	7	8
1. 자질과태도								
2. 능력역할	.836**							
3. 핵심역량	.961**	.954**						
4. 진로포부	.178**	.219**	.208**					
5. 진로불확실성	-.179**	-.099	-.147*	-.412**				
6. 고용압력	-.029	-.025	-.027	-.257**	.543**			
7. 정보부족	-.064	-.026	-.047	-.422**	.683**	.669**		
8. 외적갈등	-.166**	-.117*	-.148*	-.276**	.662**	.448**	.676**	
9. 진로스트레스	-.136*	-.082	-.114*	-.410**	.875**	.774**	.891**	.828**

* $p<.05$ ** $p<.01$

3. 핵심역량과 진로포부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핵심역량과 진로포부가 진로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핵심역량의 하위변인인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과 진로포부를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는 진로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VIF는 모두 3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포부와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은 유의수준 .05에서 진로스트레스를 부적으로 유의하

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는 진로포부,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화량 중 18.4%를 설명하고 있다.

표 7.

핵심역량과 진로포부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5.168	.403		12.815	.000
자질과태도	-.349	.146	-.229	-2.395	.017
능력역할	.287	.139	.200	2.067	.040
진로포부	-.583	.076	-.412	-7.661	.000
R ² =.184 F=57.63(p<.000)					

핵심역량과 진로포부가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독립변인으로는 핵심역량의 하위변인인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과 진로포부를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는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진로불확실성, 고용압력, 정보부족, 외적갈등을 각각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VIF는 모두 3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진로스트레스의 하위 변인에 따라 영향 변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트레스의 하위변인별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불확실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진로포부와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인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은 유의수준 .001에서 진로불확실성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는 진로포부,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화량 중 20.1%를 설명하고 있다.

고용압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진로포부는 유의수준 .001에서 진로불확실성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인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포부는 고용압력의 총 변화량 중 6.8%를 설명하고 있다.

정보부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진로포부와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인 능력역할은 유의수준 .001에서 정보부족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인 자질과 태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는 진로포부, 능력역할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화량 중 19%를 설명하고 있다.

외적갈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진로포부와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인 자질과 태도는 유의수준 .001에서 정보부족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인 능력역할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기여도는 진로포부, 자질과 태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화량 중

9.6%를 설명하고 있다.

표 8.

핵심역량과 진로포부가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진로불확실성	(상수)	6.280	.553			
	자질과태도	-.685	.200	-.325	-3.424	.001
	능력역할	.522	.190	.262	2.742	.006
	진로포부	-.806	.104	-.411	-7.724	.000
$R^2=.201$ $F=24.85(p<.000)$						
고용압력	(상수)	4.534	.467			
	자질과태도	-.052	.169	-.031	-.306	.760
	능력역할	.091	.161	.059	.570	.569
	진로포부	-.405	.088	-.265	-4.602	.000
$R^2=.068$ $F=7.150(p<.000)$						
정보부족	(상수)	5.016	.445			
	자질과태도	-.250	.161	-.148	-1.554	.121
	능력역할	.308	.153	.194	2.012	.045
	진로포부	-.686	.084	-.438	-8.173	.000
$R^2=.190$ $F=23.079(p<.000)$						
외적갈등	(상수)	4.840	.492			
	자질과태도	-.410	.178	-.232	-2.304	.022
	능력역할	.225	.169	.135	1.332	.184
	진로포부	-.433	.093	-.264	-4.667	.000
$R^2=.096$ $F=10.450(p<.000)$						

4. 핵심역량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핵심역량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핵심역량으로, 매개변수로는 진로포부를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진로스트레스로 설정하였다.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스트레스 하위요인별로 각 모형의 경로계수 그리고 직접, 간접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 효과는 표 9와 같다. 매개변인에 의한 독립변인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간접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9.

핵심역량과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진로포부 매개모형의 효과

종속변인	총효과(직접효과, 간접효과)		
	핵심역량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
진로불확실성	-0.147 (-.064 -.083**)	-0.179 (-.109* -.070*)	-0.099 (-.010 -.090**)
고용압력	-0.027 (.028 -.055*)	-0.029 (.017 -.046*)	-0.025 (.033 -.058**)
정보부족	-0.047 (.042 -.089**)	-0.064 (.011 -.076*)	-0.026 (.069 -.096**)
외적갈등	-0.148 (-.095 -.053**)	-0.166 (-.121* -.045**)	-0.117 (-.059 -.058**)
진로스트레스	-0.114 (-.030 -.084*)	-0.136 (-.065 -.071*)	-0.082 (.008 -.090**)

핵심역량과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포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핵심역량은 핵심역량 전체와 핵심역량의 하위요인인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로 구분하였다. 경로모형과 경로계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핵심역량의 경우 진로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로포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8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포부는 핵심역량과 진로스트레스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핵심역량은 진로포부를 매개로 하여 진로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자질과 태도는 진로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로포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7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 능력역할 또한 진로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로포부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9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다. 즉 핵심역량의 하위변인인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 또한 진로포부를 매개로 하여 진로스트레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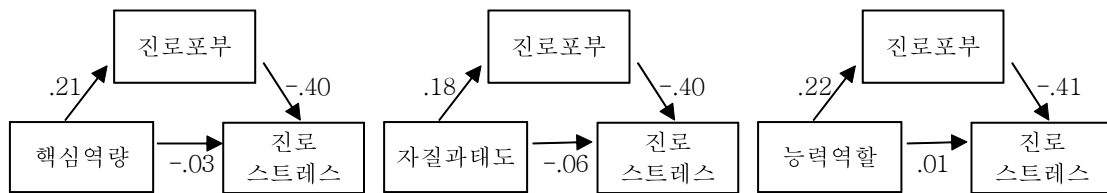


그림 1. 핵심역량(자질 과 태도, 능력역할)과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진로포부의 매개모형결과

IV. 논의

이상의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의 핵심역량은 하위요인을 비롯하여 3학년 학생들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연구대상의 학교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들의 역량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의 구성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요즘 많은 학과에서 주목하고 있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학생들의 보육교사 역량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진로포부의 경우는 3학년이 제일 높고 2학년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3학년의 경우 미래의 비전을 갖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1학년의 경우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육교사의 꿈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학년의 경우 과도기적인 시기로 1학년 시기의 학과에 대한 기대나 신선함이 다소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요인을 밝히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진로스트레스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에는 하위요인 중 고용압력, 정보부족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정보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역량과 진로포부, 진로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서는 핵심역량과 진로포부는 정적상관을 핵심역량과 진로스트레스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포부와 진로스트레스는 부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즉 핵심역량이 높아질수록 진로포부는 높아지지만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진로포부가 높아지면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있다. 진로스트레스는 진로결정 효능감이나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박선영, 2015 ; 주영주, 김동심, 2014)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보육관련 학과들은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핵심역량을 추출하고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핵심역량과 진로포부 및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변인만을 다루었지만 진로와 관련된 더 다양한 변인을 추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핵심역량과 진로포부는 진로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역량의 자질과 태도 및 능력역할 그리고 진로포부를 독립변인으로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불확실성에는 자질과 태도, 능력역할, 진로포부가 모두 영향을 미쳤으나, 고용압력에는 진로포부만이, 정보부족에는 능력역할, 진로포부가, 외적압력에는 자질과 태도, 진로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깨닫고 앞으로 자기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나 기대되는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는가를 의미하

는 진로포부는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핵심역량 하위 요인들은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역량강화의 교육과정 제공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진로포부를 설정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핵심역량과 진로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진로포부의 매개모형을 살펴보면 핵심역량은 진로스트레스에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진로포부를 매개로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핵심역량은 진로포부를 매개로 하여 진로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인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이 진로포부와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직접적 연구는 없었다. 하지만 신원(2007)은 고등학생의 학업 효능감은 진로포부와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하였으며, 유성경, 홍세희와 이아라(2006)는 고등학생의 학업 효능감은 진로장벽과 진로포부를 매개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학업 효능감과 달리 핵심역량은 진로포부와 진로스트레스의 관계를 간접 매개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진로포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이 핵심역량강화는 진로스트레스를 줄이는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의 보육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핵심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변인이 추후연구에서 다루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보육학과 학생들의 핵심역량과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포부를 다룬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국현(2016). 전문대 학생의 진로포부와 개인 및 대학변인의 위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재(2013). 남녀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희(2013).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 학습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2010). 교사의 핵심역량이 학생의 학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언(2011). 보육교사의 핵심역량 구성요인 분석에 기초한 보육 교사 교육과정 모형탐색. 강원대학교 산업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유경재, 전중희, 엄채윤(2007). 개인의 역량 측정을 위한 다중지능 하위요소의 재분석. 교육심리연구, 21(2), 283-309.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윤여복, 이기성(2010). 교원연수 담당자의 역량에 관한 수행 수준 분석. *유아교육연구*, 6(4), 69-93.
- 박경진(2015). 보육교사의 보육 현장 핵심역량 인식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요구 조사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2008).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태(2011). 교사의 핵심역량에 근거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수업연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은혜(2002).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유아교사의 지식. 서울: 창지사.
- 박혜경(2012). 유치원 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학론집*, 16(6), 189-211.
- 배진오(2013). 유아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수준 및 요구조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리(2008). 보육교사론. 서울: 동문사.
- 박희락(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태도성숙도의 예측: 진로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홍숙(2015). 보육정책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한국보육학회지*, 15(2), 65-84.
- 성병창, 부재율, 한경임, 이경화. (2009). 교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조사. *수산해양교육연구*, 21(1), 78-95.
- 신원(2007).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정(2012). 유치원 초임교사 교직역량 개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원, 김의향(2015). 2급 예비보육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육필수영역 교과목 운영의 방향성 모색. *한국보육학회지*, 15(4), 345-368.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와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유순규, 김은주(2016). 대학생들의 삶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K-CESA 핵심역량,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29(2), 1-26.
- 유영의(2011). 미국과 캐나다의 유아교사 핵심역량 분석과 교육적 시사. *교육사상연구*, 25(2), 153-177.
- 윤현희(2008). 장애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진로장벽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대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2010). 전대학생의 일반적인 개인 특성 및 성격 5요인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직업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정(2013).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진로미결정 및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6(1), 119-139.
- 이봉재(2012). 진로스트레스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2), 227-249.
- 이지혜(2014).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2012). 유아교사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유아교육과 교육과정 분석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홍민, 김종인(2003). *핵심역량 핵심인재*. 서울: 리드리드출판.
- 임승렬(1990).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한 현자의 조건: 교사의 전문성과 역할. 한국 어린이 교육협회. 1990년도 가을 세미나 자료.(박경진, 2015년 재인용)
- 임옥경(2014). 유치원 교사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은정(2009). 유아교육기관장 역할 역량 척도 개발. *홀리스틱교육연구*, 13(3), 87-108.
- 전경구(1998). 대학생용 생화스트레스 척도개발연구 II. *재활과학연구*, 14(1), 15-37.
- 주영주, 김동심(2014). 특성화고교생이 경제적 스트레스, 학교소속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학교만족도의 규명관계. *교육과학연구*, 45(1), 73-95.
- 최숙현(2007).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화영(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Farmer, H. S., & Chung, Y. B.(1995). Variables related to career commitment, mastery motivation, and level of career aspir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1(4), 265-278.
- Gottfredson, L. S.(1996). Using Gottfredson's theory of curriculum and compromise i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71-100.
- Kim, Y. H.(2014). *Measuring career aspirations in korean college wom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cClelland, D. C.(1973). Test for competency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14.

O' Brien, K. M.(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OECD(2002).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strategy paper*. OECD press.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NY: John Wiley.

<http://nikostat.kr/2114>

투고일자 2017.04.28 / 수정일자 2017.06.20 / 게재확정일자 2017.06.24

Abstact

The Effect of Preservice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 s Competency on Career Stress : Career Aspiration as a Mediator

O, Dae youn
(Sungkyunkwan University)

Lee, Byung lim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 s competency on career stress and the effect of career aspiration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s competency and career stress. The survey based on self report questionnaires was administered to a total of 200 students in child education and care college in Gyeonggido areas. The results of this were as follow: First, the result which examined the correlationship between major variables has found to be the significant correlationship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 s competency, career stress and career aspiration.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 s competency and career aspiration have found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ut career stress and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 s competency and career aspiration have found to have the negative correlationship. Second, the result which examined the mediated effect of career aspir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s competency and career stress has found that career aspiration has the complete mediated effects. Consequently,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spiration were confirm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in the study meanings. limitations and proposals for next studies in the study were discussed.